

여야, 막바지 공천 작업... 국민의힘 '순항'·민주당 '마찰'

국민의힘, 친윤 단수공천 최소화 민주당, 시스템 공천 곳곳서 흔들

4·10 총선 40여일을 앞두고 여야가 막바지 공천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휴일이었던 18일에도 단수공천자를 잇따라 발표하며, 대진표 마무리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광주지역 비명(비 이재명)계 현역 의원과 이인영·노영래·홍영표 등 일부 '친문(친 문재인) 계' 현역 의원을 제외하고 인제 영일 인사 등을 넣어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계파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순항' =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8일 부산 지역구 예비 후보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3선인 김도읍 의원(북·강서울), 주진우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해운대갑), 김미애 의원(해운대을), 이성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사하갑), 정동만 의원(기장) 등 5명은 단수 추천됐다.

당의 협지 출마 요구를 받아들여 지역구를 옮겨 출마한 서병수 의원은 북·강서갑에 우선 추천됐다. 단수·우선 추천된 6명은 사실상 공천이 확정됐다.

국민의힘은 공천 초반부터 '시스템 공천'을 강조하며 '친윤(친 윤석열)계' 현역 의원들과 대통령실 인사들을 단수 공천 등에서 제외하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 14일 발표 첫날부터 대통령실 출신은 주 전 비서관을 비롯한, 전희경(경기 의정부갑) 전 대통령실 정부비서관과 이순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서울 중랑갑에서 단수공천을 받아 총 3명으로 늘었다. 다만, 전 전 비서관과 이 전 행정관의 지역구인 의정부갑, 중랑갑은 여당 내에서 '협지'로 분류되기 때문에 '대통령실 출신도 예외는 없다'는 시스템 공천 원칙이 확인됐다는 평가다.

앞서 김성희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도 서울 송파갑에 공천을 신청했다가 경선 기회도 얻지 못한 채 '컷오프'됐다.

◇더불어민주당 계파간 갈등 지속=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은 곳곳에서 마찰을 빚으면서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민주당과 지역정파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역 비명계 현역 의원이 있는 서구갑

지역구에 대한 여론조사가 시행됐다. 여론조사는 현역인 송갑석 의원을 배제한 채 '민주당' 정은경 전남대 의대교수와 국민의힘 하현식, 개혁신당 이낙연 전 국무총리' 간 지지를 묻는 문항이 포함됐다.

민주당이 앞서 전략선거구로 발표한 서구을은 전략공천 등을 위한 포석으로 해석되지만 현역의원이 있는 다른 선거구에 대한 여론조사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

연합뉴스TV 취재에 따르면 지난 17일 인천 부평을에서는 '친문' 4선 홍영표 의원이 후보군에서 제외되고 '친명' 이동준 의원(비례대표)과 영입인재인 박선원 전 국정원 1차장 등 두 사람의 경쟁력만 묻는 전화 여론조사가 진행됐다.

서울 마포갑 지역구에서는 이지는 전 경무관과 김남근 변호사를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과 각각 견준 여론조사가 실시됐다. 현역인 노 의원과 마포갑 지역 민주당 예비후보를 모두 제외된 여론조사인 만큼 노 의원 컷오프 이후 전략 공천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 구로갑 지역구에서는 이인영 의원이 제외된 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용우 노동위원장과 국민의힘 호준석 후보간 경쟁력을 겨누는 여론조사가 실시되면서 이 위원장의 영입이 점쳐지고 있다.

앞서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심야에 조정식 사무총장 등 일부 인사들과 현역 의원 컷오프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밀실 공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현역 의원이 제외된 여론조사가 계속해서 실시되면서 계파간 갈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녹색정의당 '고심' = 녹색정의당은 18일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에 불참하는 대신 집전 지역구에서의 야권 연대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조속히 논의를 시작하자고 요청했다.

녹색정의당 김준우 상임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국민의 힘 의석을 최소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지역구는 연대하고 비례는 독자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윤석열 정권 심판의 명분을 가장 극대화하고 유권자 사표를 최소화하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또 범야권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려는 과정에 진보당이 일부 지역구 후보를 자신들의 몫으로 할당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이 18일 여의도 당사에서 5일차 면접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총선 코앞인데 선거구는 아직도 '깜깜'

여야 '29일 본회의' 처리 목표 최악 낙장사태 우려도 현역 기득권 싸움에 신인만 피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구 확정 문제가 여전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일부 선거구 공천 신청자들의 애가 타들어가고 있다.

1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에 따르면 선거구 확정 문제를 놓고 여야 협상이 공전을 되풀이하고 있다.

여야는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선거구 확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본회의 통과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여야 대치가 계속되면서 확정안이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오는 21일까지 협상안이 타결될 가능성은 작아 보이기 때문이다.

앞서 여야는 서울 종로와 중구, 강원 춘천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서울 노원 3개 지역구를 2개로 합치는 등 일부 지역구 조정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정점 지역구를 두고선 강 대 강 대치를 계속하고 있다.

만약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선거구 확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선거일 39일 전에야 확정안이 이뤄졌던 직전 21대 총선 못지 않은 낙장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서 19대 총선 때는 44일, 20대 때는 42일을 각각 앞두고 선거구 확정안이 이뤄졌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15일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조정위원회가 제시한 확정안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 확정안 가운데 여당 '뒷발'인 서울 강남 3개 지역구는 그대로 두고 민주당 우세 지역인 경기 부천과 전북에서 1석씩 줄이는 내용은 수용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특히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선거구 확정안을 최대한 적용할 경우 전남지역 선거구 일부는 '공중 분해' 되거나 통합되는 등 혼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확정안에는 전남의 경우 기존 '순천·광양·곡성·구례' 갑과 을 선거구를 순천시 갑과 을 선거구로, 광양·곡성·구례 선거구로 분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목포시와 나주·화순, 해남·완도·진도, 영암·무안·신안군 선거구가 ▲목포·신안 ▲나주·화

순·무안 ▲해남·영암·완도·진도 선거구로 통합 조정됐다.

현행 영암·무안·신안군 선거구는 '공중 분해'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4·10 총선이 50여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선거구의 예비 후보자뿐 아니라 유권자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원내지도부는 일단 '29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협상을 재개하겠다는 생각 이어서 조만간 극적 타결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총선 때마다 선거구 확정안이 지연되는 것을 두고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지키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면서 "선거구 확정안이 늦어질수록 정치 신인들의 선거 운동 효과가 제약되고 반대로 현역 의원들이 누리는 '프리미엄'은 더 강해질 수 있어서다"고 설명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SINCE 1952

한총리 담화 "의사 집단행동 말고 환자 곁 지켜달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이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자 18일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 의료공백이 벌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자제를 촉구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불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지금 우리 의료체계는 위기에 놓여 환자들과 의사가 다 같이 심각한 괴로움을 겪고 있다"며

중증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사례와 이른바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수도권 원정 치료 등 문제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절대적인 의사 수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의료 개혁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의대 정원 확대는 더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 같은 호소에도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강행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연합뉴스

아토피 초등학교, 장성으로 유학오세요

아토피 유학 설명회

- 장소 : 장성문화예술회관
- 일시 : 2024년 02월 28일 (수요일) 15:00

우리 아이 아토피! 온 마을이 함께합니다

- 피부과 전문의 및 한의원의 정기 진단 진료
- 통합의약의 입장에서 전문약사가 진행하는 숲이 보낸 처방전
- 숲해설가 및 산놀이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어린이 숲속 놀이
- 놀이 전문가가 진행하는 황토길 산책 및 맨발걷기
- 전문한의사를 한방주치의 제도 아토피 치료
- 교육심리 전문가와 함께하는 부모교육
- 숲에서 이루어지는 1박2일 가족캠프

특별혜택 - 거주 펜션 지원 (선착순 30명)

축령산 자연속에서 신나게 놀아요
아토피 관련 치유 프로그램
다양한 방과후 특별교육(물놀이 숲놀이)

1급수 축령산 모암저수지 어린이 물놀이터, 숲놀이터 개장예정

전라남도 장성교육 지원청 (061) 390-6000